

忠南의 수산업 현황과 大川水高의 역할

유 화 상 · 정 상 영

(대전수산고등학교)

I. 서 언

우리 나라의 수산업은 196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원양어업에서부터 새로운 산업의 장을 열었다. 이와 같이 단시간내 이룩한 우리 나라 수산업의 발전은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유례이며,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60년대부터 경제도약에 일조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수산계 학교의 고급 및 중견인력의 배출에 의하여 이루어 졌음을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다. 산업사회의 급변은 새로운 양상의 직업형태를 요구하게 되고 생활의 기본적 욕구를 다른 가치관으로 수용하므로써 직업에 대한 인식 등의 문제점이 올바르게 인식되기 전에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인문승상의 선호와 제도의 다변화 등으로 결국 학교교육에 대한 욕구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실업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곤 하였지만 아직 가시적 대안을 찾아 볼 수 없는 형편이다. 최근 인문계 학교로의 진학은 대학입시와 연관시켜 최대의 사회적 잇수가 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생산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은 아직 사회적, 교육적 잇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어느 부분은 질과 양이 넘쳐 흐르고 어떤 분야는 질과 양이 태부족인 학교교육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21세기 미래사회를 전망하여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 나라의 교육적 방향을 냉철히 숙고해야 할 때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수산계 고등학교는 농업계 고등학교와 매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육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충남대천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수산고등학교의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을 연관시켜 역점을 두어 추진한 업무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충남 수산업의 현황에 비추어 수산고등학교의 역할을 제고하였다.

II. 학교의 현황과 발전 방향

1. 忠南 수산업의 現況

상투에 갓을 쓰고 서당에서 논어, 사서삼경을 가르치며 양반의 道를 익히는 곳이 아직도 남아 있는 충

절의 고장이자 양반의 고장인 忠淸南道는 서해중부에 접하고 있다. 행정조직상으로는 6개 市, 9개 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관계 유관기관은 道水産課, 5개 市, 郡의 水産課, 4개 市, 郡에 水産係, 1개 郡에 내수면계가 있다. 그외 忠南道 내수면개발 시험장, 국립수산종묘배양장 2개소, 어촌지도소 2개소, 수산물검사소지소, 수협중앙회 충남도지회, 4개 지구별 수협, 72개 어촌계가 있다.

해안선은 대략 953.3km로서 길이가 길며, 굴곡이 심하고 도서의 해안선이 긴 편이다. 또한 간만의 차가 크고 대륙붕과 간석지의 면적도 매우 넓다. 어업인구는 12,950가구에 43,741명이며 어선세력은 4,665척에 17,040톤으로서 연안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수산물 생산은 75,247톤으로서 全國生産의 2.2%이며, 수출은 2,677천불(U.S.)이다. 매년 해안의 매립 간척공사로 인하여 연안어장이 축소되므로서 어민은 생활터전을 서서히 잃어가게 되자 여러 지역에서 보상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 漁村은 노령화, 부녀화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총어획생산량은 매년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고, 자원감소로 인하여 주요어획 어종도 바뀌고 있다. 연안어업의 주종은 자망, 초망, 통발, 남장망이며, 양식업은 가두리, 제방식, 수하식, 부류식, 육상수조식에 조피볼락, 넙치, 전복, 대하, 황복, 굴, 김 등의 종류를 양식하고 있다.

2. 大川水高의 現況

대천수고는 우리 나라의 중부권(경기, 충남, 충북, 전북)에 위치하고 있는 유일한 수산계고등학교로서 연중무휴 관광지로 유명한 대천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48년에 개교하여 48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설치되어 있는 學科는 <표 1>과 같이 해양생산과(어업과에서 97년에 바꿈), 양식과, 동력기계과, 자연수산과로서 4개학과에 정원 549명중 재학생은 390명이다.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수산의 중추적 학과인 어업과에 지원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직원수는 교장이하 교직원, 일반직(사무원, 선원포함) 병설중학교 선생을 포함하여 모두 85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대천수산고등학교는 1994년도에 농림수산부에서 자연자 양성수산고등학교로 지정되므로서 1995년도에 13억3천만원, 96년도에 10억원의 지원을 받아 각종 실습시설과 실습기자재를 구입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도내에서는 물론이고 전문대학 이상의 시설과 기자재를보유하게 되었으며, 1997년도에는 10억원 이상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는 <표 2>와 같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해산어 양어동, 갑각류 양식동, 종묘(포자) 배양동, 담수 양어장, 실습선 2척(160톤, 9톤), 각 학과

<표 1> 학생 현황

학 과	학 급 수	정 원	현 원	학년별 학생수		
				일 학 년	이 학 년	삼 학 년
어 업 과	3	143	56	28	18	10
수산양식과	3	143	117(95)	41(33)	41(32)	35(30)
동력기계과	3	143	120	45	43	32
자연수산과	3	143	97	40	35	22
계	12	549	390(95)	154(33)	137(32)	99(30)

()은 여학생 수

<표 2> 종합 실습실 시설 현황

시 설 명	규 모 (m ²)	주 요 시 설 및 운 영
종합실험실습실	1동 (382)	실험실습실
냉동냉장실	1동 (198)	어패류 저장
포자 및 종묘배양장	1동 (86)	해조류, 포자 및 종묘배양
합수양어장	1동 (330)	합수어 부화 및 사육실습
담수양어장	1동 (165)	담수어 부화 및 사육실습
김건조장	1동 (173)	김 가공 과정 실습
지하수관정	1일 22톤 이상	담수 양어장 지하수 공급
해수취배수장	500톤 저장	합수 양어장 및 배양장 합수 공급

전문 교과별 실험실습실, 멀티미디어실, 어학실, 자료실, 해양전시관, 젓갈발효실, 냉동냉장실, 어민 상담소, 기숙사(2인 1실, TV, 에어컨, 냉장고) 등을 갖추고 있다. 양식하고 있는 품종은 넙치, 조피볼락, 송어, 황복, 꽃게, 감성돔, 자라, 틸라피아, 관상어 등이며 대하, 김포자도 양식하였다.

재학중인 학생중에서 수산업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뜻을 두고 지원한 학생은 19.6%이며, 진학율은 36.2%(대학 6%, 전문대학 30.2%)이다. 기능사 자격취득율은 98.8%(해기사 38.6%)로서 학생 개개인의 자존심이 매우 높으며,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열의와 결심이 대단하다. 이것이 학교의 풍토가 되고 전통으로 이어지도록 전 교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재학생 전체의 60%가 장학금의 수혜를 받고 있다.

3. 96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된 업무

1) 신입생 유치

1988년도까지 신입생의 지원경쟁율은 3개 道, 32개 중학교에서 지원함으로써 2 : 1을 넘었지만, 그후 6년간에 걸쳐 자영수산과를 제외한 다른 과는 계속 미달되는 실정이었다. 당해연도에 정시모집에 지원자가 미달되면 다음해 3월말까지 추가로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이에 따라 신입생중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는 학생이 10.2%로 집계되었다. 또한 재학생중에는 학교생활이 성실하지 못한 학생도 입학하므로서 신입생의 질적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어느 학교보다 역사나 시설이 뛰어난다손 치더라도 계속적으로 문제학생에 의해 사고가 생기면 형편없는 학교로 평가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물며 동창회에서 재학생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여론이 좋지 못하게 인식되어 가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필요성, 또는 존속의 필요성마저 논하게 되는 현실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데, 인근 중학생들이 대천수고의 학교버스를 타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지역 주민의 학부모는 다른 고등학교에서 떨어지면 대천수고에 보내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대천수산 고등학교 교직원들은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학교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하여 1996년도부터 신입생유치를 일차적 목표로 삼았다. 물론 세밀하고 또한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며 계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 학교 홍보 활동

우선적으로 대천수고를 졸업하고 양식사업을 경영하여 지역사회에서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졸업생 1명을 선정하여 이 졸업생이 경영하고 있는 양식현장과 경영기법에 대하여 향후 전망과 함께 지역사회에 홍보하였다. 홍보 내용에는 이 졸업생이 성공을 하게 된 배경에는 수산교육의 요람이자, 모교인 大川水高를 졸업함으로써 가능하였다는 점을 크게 부각시켰다. 홍보방법으로는 TV방송사와 협의하여 이와같은 현황을 녹화한 다음, 일정 시간에 방영하였으며, 또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라디오방송사를 이용하여 이와같은 사실을 널리 홍보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로서 전국 여러 지역에서 문의 전화는 물론이고 직접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다. 이와 같은 홍보의 의미는 정확한 현황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 수산교육의 중요성과 수산업이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면이 있음을 인식시켰으며, 부수적으로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얻게 된 것은 조직적인 계획하에 끈실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교직원 모두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였다.

(2) 학교 견학 안내

학교는 전문지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행하며, 또한 지역사회의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문화적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조직체이다. 그러므로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가 사명감을 갖고 출선수범할 때 최대의 교육 성과를 거둘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학교가 이러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주민 모두가 동참하고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인근 20여개 중학교의 교감, 3학년 담임선생을 대상으로 하여 각종 실습시설, 양어장을 둘러보도록 하였으며, 이어서 3학년 학생들은 4회로 나누어 견학의 기회를 주었다. 생동감 있는 양식장의 현황과 현장감 있는 실습실과 실습선을 견학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 지역 기관장, 동창회원, 지역 어민 등은 물론이고, 수산관련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학교시설물을 견학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3) 학교 소개

학교 소개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한 후 교장, 교감은 물론이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선생님이 직접 나서서 대천주변은 물론이고 대천 이외의 인근 市,郡의 中學敎를 방문하여 오전 07시 30분에 시작하는 아침 자율학습시간에 水産業의 중요성과 水高의 역할을 약 2개월에 걸쳐 소개하였다.

때로는 어려운 점도 많았으나 학교를 홍보함과 동시에 수산업의 중요성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열심히 노력하였다. 신입생 입학과 관련된 일은 가시적으로 어느 한해만 나타날 수 있다면 학교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힘입어 입학한 학생은 학교생활을 누구 보다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임했다.

역시 심은대로 거둔다는 말과 같이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 96년에는 신입생 경쟁율이 1.3:1 이었다. 수산업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산업임을 인식하므로써 학교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출발로 받아 들였다. 또한 교직원, 수산 관련 단체 및 동창회에서 그 결과를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 들이므로써 동창회에서는 교문옆 동산에 상징탑을 세우기도 했다.

이젠 대천 수산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진학하였다가 떨어진 학생의 집합체가 아니며, 또한 능력이 부

족하여 입학할 수 있는 후발학교가 아닌 당당하게 장래의 희망을 갖고 자존심 있는 학생이 선발되어 입학하는 기원을 이루었다.

2) 꽃게, 황복 종묘생산 방류 및 양성

忠南에서 생산되는 水産物中에서 생산량이 많고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꽃게와 황복은 자원이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으므로 연구에 착수했다. 더군다나 꽃게는 게장, 무침, 탕, 무젓, 찜 등 우리 식생활에 낮은 조리에 사용되므로 고가의 식품으로서 이용되는 양식 대상종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학습활동과 연관시켜 꽃게와 황복에 대하여 세밀히 관찰하므로써 연구의 터전을 오래 동안 닦았다. 이와 아울러 학생들이 꽃게와 황복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학습교재를 만들어 과목수업 시간에 부교재로 사용하였으며, 주로 실습시간과 방과후의 시간을 이용하며 어미암게의 포란상태를 관측하여 산란시기 예측, 좋은 어미 고르기, 산란준비 등 기초적인 것부터 익힐 수 있는 실습 지침서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어려운 문제도 많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많은 것을 익히고 방법을 터득하였다. 이를테면 지난 7월 20일 어미 암꽃게 9마리를 구입하여 학생들과 함께 부화에 착수한 후 4번의 탈피를 하는 조에아(Zoea) 과정, 1번 탈피의 메갈로파(Megalopa)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온이 32.5~33.5℃로 상승하므로써 먹이생물인 로티퍼(Rotifer)배양이 매우 어려워 그 과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다. 냉동실의 얼음덩이를 여과조에 넣어가면서 방학도 없이 밤, 낮 구슬땀을 흘렸다. 다시 2번의 껍질을 벗으면서 길이가 1.0~1.5cm 되는 새끼게의 모습이 되었을 때, 8월 17일 대천 해수욕장 남쪽바다에서 지역 주민, 학부모, 학생, 수산관련 단체 및 관광객과 함께 생산된 7만 마리의 꽃게종묘를 방류하였다. 이 소식이 TV뉴스시간에 방영되었으며, 중앙지, 지방지에 일제히 게재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협 중앙회 발행지, 교육부 발행지 등 관련 잡지에도 소개되었다.

방류하고 남은 새끼꽃게는 정성들여 양식하고 있으며, 갑장이 5cm전후로 컸다. 또한 황복은 멸종위기에 놓여 친어를 구하기가 어려웠으나, 경기도 파주의 임진강에서 어획된 것을 6마리 구입할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해 H.C.G 주사를 놓는 등 정성스럽게 운반시켜 채란, 수정, 부화를 시켜 제대로 양식하고 있다.

3) 자영자 養成을 위한 技術 습득 강화

최근 젊은이의 대부분은 도시를 선호할 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3D 기피 현상으로 인해 지역학교를 졸업하면 漁村에 남아 자영하겠다는 대천수산고등학교 학생은 전체재학생의 8.4%에 불과하다. 향후 5년내에 수산자영을 희망하는 학생이 20% 이상 늘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여기에 맞도록 내실있는 수업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학습방법을 도입하였다. 첫째, 특산품종은 물론이고 양식이 가능한 여러 품종에 대해 완전양식을 위한 기능을 정확히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둘째, 그외도 자영을 위해서는 필수 기능으로 되어 있는 품종선정, 연중계획 수립을 위해 중요과목 의무적 이수에 따라 개개인에 대해 실습장 벽면에 실습 결과를 차트화하여 꽃무늬표를 붙이므로써 개인별 열성과 결과가 확연히 드러나게 하여 비교하였다. 셋째, T.P 자료, VTR tape, Slide 사진, 판넬 멀티미디어 자료 등 실습에 참고가 되는 많은 자료를 직접 제작하여 使用하

였다. 넷째, 학교버스를 이용해 선진양어장 및 어촌의 실태를 직접 견학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1학년 과정에서 동해연안, 2학년 과정에서 남해연안, 3학년 과정에서 서해연안을 각각 4박 5일씩 견학하므로써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과 그에 따른 또다른 이면을 스스로가 체험하여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을 심어 주었다. 다섯째, 각 학과 공히 2학년 과정에서부터 전공분야별로 2~3개 해당하는 기능을 익혀 전문지식을 전문화하는 길을 지도하였다. 예컨대, 동력기계과의 경우 자동차 정비분야, 보일러 냉동분야, 용접 배관기관분야로 나눠 기능을 보유하게 하고, 그 전공을 이용하여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여섯째, 忠南道內 수산기관장 7명, 漁民 5명, 교장, 교사 2명으로 産學協同운영심의회(위원장: 수산고등학교교장)를 조직하여 격월로 모였다. 여기에서는 産學間 연구협조, 연구문제 모음집(연구보고서) 간행, 실과교사는 現場에서 1주 이상 연수, 어민소득을 위한 연구, 교육 업무 협의, 양식품종 중요생산방류, 학생현장 실습 및 취업, 자영의욕 고취를 위한 유관기관장 및 자영하는 선배의 특강, 수산정보교환, 忠南 수산교육연구회(회원 126명) 활성화 및 연계, 수산종묘 방양장과 연구사의 실습지도를 위한 교사위촉 등으로 자영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익혀 수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수산업 분야의 당당한 역군으로 만들었다.

4) 지역사회 주민과 유대강화

학교에서 지역 어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소형 선박해기사 시험을 치르도록 시험장소를 제공하고, 실습 시설 및 해양전시관을 개방(1976명 견학)하고 있으며, 어민상담소를 운영(67명 상담, 경영교육실시)하여 대화의 창구를 열고 있다. 또한 해양탐구 교육(년 2회 초·중·고생 420명 교육) 등으로 돈독한 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年 1회 종합예.체능 대회(수산기능발표회, 시화전, 사진, 우표, 분재, 수석, 수산생물 표본 등의 전시회, 모래 조각전, 체육대회, 장기자랑, 음식솜씨자랑(여학생), 수산관련 가장행렬)를 열어 학교와 지역주민들이 더욱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지역 주민의 이해의 바탕위에 학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5) 단기적 발전방향과 추진계획

(1) 지역의 특성상 학교의 효율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 특수 목적 교교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여(2000년까지 25명) 소수 정예화, 학과 증설, 전교생이 자영수산에 뜻을 갖도록 하는 계획아래 각종 수혜와 자구책을 위한 노력, 실기를 통한 실무 전문화 과정을 거치므로써 동일계 대학의 진학과 수산자영 및 수산업계 진출 등을 면밀히 계획하고 있다.

(2) 학교 규정에는 없지만 지속적인 학교의 발전을 위해 홍보실 운영을 기획업무와 연관하여 활용한다. 대천은 물론이고 인근 일원에 걸쳐 중등교육과정에서 수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水高 소개는 물론이고 각종 신문, TV, 월간지를 통해 수산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 수산관계 소식 등을 알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3) 산·학협동운영심의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산, 학간 유대강화와 교사, 학생, 어민은 합심하여 실습하고, 현장연구를 활성화하므로써 자영의욕을 높이는 진로지도의 기본으로 한다.

(4) 신입생 유치를 위하여 20여개 중학교의 특별활동을 위하여 과학반에 강의 및 해양생물 채집, 분류, 실습지도 등을 통하여 더욱 친근감 있게 현장과 연계하여 계획을 추진한다.

(5) 교육부 지정 수산교육 연구학교 운영 발표를 위하여 1996년에서 1997년까지 운영한 연구학교의 운영결과를 전국규모로 발표한다.

(6) 양식 품종의 종묘생산 방류와 양성을 위하여 꽃게종묘 20만마리를 생산하여 방류하고, 넙치종묘 10만마리를 생산하여 어민에게 저가로 판매한다. 또한, 다양한 품종을 양성할 수 있는 실습, 연구 터전을 마련한다.

Ⅲ. 결 언

선진국의 대열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균형적 산업발전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식량을 담보로 한 국제무역의 역순환을 대비하여 국가적 자급자족을 위한 식량생산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복합산업으로 되어 있는 농업이나 수산업을 도외시 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21세기 미래사회를 위한 사회발전은 환경친화적 세계관 위에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하므로 이와 가장 관계가 깊은 수계산업은 바로 인류의 생존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면에서 유망한 미래산업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산업에 필요한 중견 인력수급을 책임지고 있는 수산계 고등학교의 발전방향의 모색은 보다 중요하며, 여러 분야에서 이와 같은 주제를 놓고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대천수산고등학교의 현재의 상황을 돌아 보고 역점을 두어 추진한 업무를 진단하여 현실의 문제를 확인하므로써 학교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였다. 수산고등학교의 교육내용은 기초적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자영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소지함은 물론이고 이와같은 전문지식을 많은 어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어민후계자를 양성해야 하며, 수산업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종사할 수 있는 역군을 길러내어 지역사회의 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생활은 물론이고 학교 성적을 상위권으로 유지하여 전문지식의 향상을 위한 진학의 길을 열어야 하며 관련업체가 요구하는 중견 전문인은 양성해야 한다. 또한, 수산을 이해하는 바탕위에 학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정신적자세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전문기술의 연마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수산고등학교간의 연계성을 유지하며, 해당 지역 수산고등학교 교사의 역할에 대해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학회, 협의회 및 연구회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수산관련 모든 사람들이 수산에 대한 애착과 신념을 가져야 하며, 수산계 고등학교 모든 구성원이 현실의 많은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최선을 다할 때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자신과 신념을 가지고 수산고등학교를 발전시킨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구상에 남아 있는 인류의 마지막 보고인 바다를 지키고 개척할 수 있는 인력을 기르는 보람일 것이다. 또한, 수산을 이끌어 가면서

잘 사는 어촌의 기수가 될 자영자를 배출한다면, 이것이 바로 학교의 역할이며, 교직자의 사명감과 학생의 결심이 만들어 낸 최대의 결과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대천수산고등학교, 교육계획서, 1966.

김삼곤, 수산교육의 현황과 전문과목의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제언,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1996.

여균희, 수산교육의 당면과제와 대책방안, 수산해양교육연구, 5권 1호, 1993, pp. 45~51.

문원호,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통한 수산교육의 저변확대 방안, 수산해양교육연구, 3권 1호, 1991, pp. 215~26.